



장종훈 “순가락만 없었죠”

롯데 팀 홈런 1위에 장종훈 타격코치 화제

요즘 ‘홈런군단’으로 거듭난 롯데의 타격이 화제다.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핫이슈’는 장종훈(사진) 타격코치의 지도력이다. 1990년부터 3년 연속 홈런왕에 오르고, 개인통산 340홈런을 기록했던 장 코치는 지난해 말 한화에서 롯데로 팀을 옮겼다. 이후 롯데 타선의 장타력이 불을 뿜고 있다.

장 코치는 그러나 손사래부터 쳤다. 4일 포항 삼성전에 앞서 “나는 그저 다 된 밥상에 순가락만 없었을 뿐”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배우 황정민이 한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뒤 남겼던 유명 수상소감을 패러디한 말이다.

장 코치는 올해 롯데 타자들의 활약에 대해 제자들에게 공을 돌렸다. 3일까지 벌써 17홈런을 때려낸 강민호에 대해서 “위낙 잠재력이 좋은 타자 아니었나. 지난 2년간 성적이 썩 좋지 않아 마음고생을 했던 부분에 대해 올해 보상을 받는 것 같다”고 치켜세웠다. 강민호에게도 같은 얘기를 들려주며 격려했더니 “올해는 정말 밝게 야구를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인사를 했다고 한다.

황재균도 마찬가지다. 한 시즌 최초 홈런이 18개(2009년 히어로즈 시절)였던 그가 올 시즌에는 벌써 15홈런을 치고 있다. 지난해 홈런수(12개)를 벌써 넘어섰다. 장 코치는 “재균이는 타격에 대해 이제 눈을 뜬 느낌이다. 위낙 욕심이 많은 타자라 더 잘하고 싶은 의욕이 큰 덕분”이라며 “내가 일일이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조용히 지켜보다 꼭 필요한 타이밍에 슬쩍 한마디씩 던지면 다들 잘 알아듣는다”고 귀띔했다. 그야말로 ‘척하면 척’인 찰떡궁합이 지도자와 선수 모두를 빛나게 한 진짜 비결인 듯하다.

포항 |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핫한 타자 LG 양석환 이승엽처럼 약점극복

양상문 감독 “변화구 연습만 하라고 했다”

최근 LG에서 ‘핫’한 타자는 양석환(24·사진)이다. 5월 17일 1군에 복귀한 이후 15경기에서 타율 0.341, 1홈런, 6타점의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비결이 있다. 양석환은 “2군에서 직구는 버리고 변화구를 치는 연습만 했다”며 “1, 2군 투수들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약점이었던 변화구를 치기 시작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LG 양상문 감독은 “(양)석환이한테 ‘너는 직구는 잘 친다. 변화구를 치기 시작하면 투수는 직구를 던질 수밖에 없다. 2군에서 변화구 치는 연습만 해와라’고 주문했다”며 “프로라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겨내야 한다”고 밝혔다. 양 감독은 NC 이호준과 삼성 이승엽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대표적 거포지만 몸쪽 공에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양 감독은 “(이)승엽이가 몸쪽 공을 치기 위해 스윙을 간결하게 하는 것이나, (이)호준이가 캡에서 몸쪽 공을 치는 연습만 하면서 약점을 이겨낸 모습을 보라”며 “(우)규민이도 경찰청에서 변화구만 19개 연속 던지면서 컨트롤을 잡았다고 하더라. 두산 민병현 역시 경기마다 ‘오늘은 슬라이더’라고 정해놓고 집중 공략했다. 그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산 | 홍재현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류중일 감독 “이승엽은 삼성 모두의 멘토”

베이스볼 브레이크 | 감독·코치·후배들이 본 이승엽

류감독 “오후 1시 전에는 꼭 훈련 귀감”
김한수 코치 “더 잘치기 위해 항상 노력”
구자욱 “안타 치고 들어오면 격려 큰 힘”

삼성 이승엽(39)이 마침내 KBO리그 사상 최초의 개인통산 400홈런 고지를 밟았다. 1995년 삼성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한 이후 일본에서 활약한 8년(2004~2011년)을 제외하면 늘 삼성 선수로만 살아온 이승엽이다. 일본에서 뛰던 이승엽을 한국으로 다시 불러들여 기회를 준 삼성 류중일(52) 감독과 삼성의 레전드 스타플레이어 출신인 김성래(54)·김한수(44) 코치, 그리고 삼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배 김상수(25)·구자욱(23)에게 이승엽은 과연 어떤 인물인지 물었다.

●류중일 감독= 통산 400홈런은 앞으로 껌 선수가 안 나오지 않을까. 부상 없이 오래 뛰면서 더 많은 홈런을 쳤으면 좋겠다. 이승엽은 홈런을 때려 삼성 선수들의 멘토다. 삼성에서 야구를 잘해서 일본까지 건너갔고, 일본에서 8년간 성실하게 야구하면서 좋은 노하우를 많이 배워 온 것 같다. 요즘도 오후 1시 전에

는 꼭 야구장에 나온다. 그만큼 경기 준비를 많이 하고 야구에 집중한다. 후배들이 보면서 좋은 점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감독으로서 더 고마운 것 같다.

●김성래 수석코치= ‘특별한 선수’라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었다. 두말할 것 없는 한국 최고의 타자다. 야구 실력뿐 아니라 인성도 좋아서 다른 선수들에게도 모범이 된다. 사실 정말 특급 선수가 되려면 야구만 잘해선 안 된다. 자기밖에 모르는 선수는 동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승엽은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면서 항상 여러



면에서 귀감이 된다. 내적으로도 아주 강한 마음을 타고 났다. ‘외유내강’이 빛나는 선수라 야구로도 그만큼 일가를 이룬 것 같다.

●김한수 타격코치=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타자다. 이승엽이 노력하는 모습을 예전부터 지켜보면서 늘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 일본에서 힘든 시간을 겪고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꾸준히 더 발전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다. 이승엽은 여전히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스스로 최고의 경지에 올라있는데도 주변 코치들과 상의하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 더 잘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그런 모습이 지금의 이승엽을 만든 것 같다. 지금 400홈런에서 멈출 게 아니라 앞으

로도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

●김상수= 이승엽 선배님이 400호 홈런을 쳤을 때 덕아웃 분위기는 상상 그 이상이었다. 일본에서의 8년이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홈런을 치셨을지 상상도 안 간다. 정말 대단한 기록인 것 같다. 오랫동안 선수생활을 하셨는데도 정말 체력 관리를 잘하시는 게 지금도 최고의 타자로 남아 있는 비결인 것 같다. 날씨가 더워지면 힘드실 만도 한데, 다른 어린 선수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방망이를 치시고 꾸준히 컨디션 관리를 게을리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나도 많은 것을 배웠다.

●구자욱= 데뷔 때부터 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선배님이었다. 지금 봐도 정말 잘 치시는 것 같아서 덕아웃에서 볼 때마다 갑탄사만 나온다. 야구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시고, 홈런을 400개나 치셨는데도 여전히 한 타석, 한 타석 아쉬워하시고 더 잘하려고 의욕을 보이시는 모습이 대단하다. 내가 한참 후배인데도 안타 하나 치고 덕아웃에 돌아오면 ‘나이스 배팅’이라고 툭툭 어깨를 두드려주시는데, 그런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된다. 후배들을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는 좋은 선배님이다.

포항 |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승엽 일등팬 아들 은혁 군
“뭘든 잘한다며 용기를 줘요”

삼성 이승엽(39)이 KBO리그 사상 최초의 개인통산 400호 홈런을 때려내던 3일, 그가 아버지 이춘광 씨와 아내 이승정 씨만큼이나 꼭 그 홈런을 보여주고 싶었던 인물이 있다. 장남 은혁(10) 군이다. 동생의 컨디션 때문에 2일 경기장을 찾지 못한 은혁 군은 3일 “아빠의 400호 홈런을 꼭 직접 보고 싶다”고 엄마를 졸랐다. 아내 이 씨는 그 덕분에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야구장에 왔고, 온 가족이 역사적인 순간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기쁨을 누렸다.

포항구장에서 만난 은혁 군은 신이 나서 야구장 복도를 누비고 있었다. ‘아빠가 대기록을 세워서 기분이 좋은 것 같다’는 질문을 던지자 무척 쑥스러워했지만, 이내 “아빠가 홈런을 쳐서 신난다.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운 것 같다”며 활

짝 웃었다. 실제로 은혁 군은 집에서 TV로 늘 삼성 경기를 지켜보는 ‘일등팬’이다. “아빠가 잘 치면 기분이 좋은데, 잘못 하는 날은 아주 약간 아쉽기도 하다. 그래도 우리 아빠가 자랑스럽기 때문에 괜찮다”고 멋쩍게 말했다.

안 그래도 이승엽은 여느 아빠와 마찬가지로 은혁 군과 둘째 아들 은영(5) 군에게 남다른 애정을 쏟아왔다. 2015년 개정판 ‘진로와 직업’ 중학교 교과서에 각계 직업 종사자 17명 가운데 한 명으로 소개된 뒤에는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아들들이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 세 권을 선물받기로 했는데, 은혁이에게는 먼저 보여줘야겠다”며 웃기도 했다.

아빠의 바람은 현실이 됐다. 은혁 군은 “우리 아빠는 나에게 늘 최고다. 늘 나한테 뭘든 ‘잘한다’고 용기를 주고, 자상하게 대해주신다”며 “나도 아빠에게 ‘대기록을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싶다”며 싱긋말을 웃었다.

포항 | 배영은 기자

KIA·코레일 ‘KTX+홈경기 입장권’ 판매

KIA는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홈경기가 열리는 토요일마다 야구 관람 정기 KTX 열차(용산역~광주송정역)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KIA와 코레일은 6일부터 ‘KTX 타고 KIA 야구 보러 가자’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 KTX 승차권과 KIA 홈경기 입장권이 결합된 상품이다. 코레일은 KTX 운임의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KIA는 입장권(K7석) 요금의 10%를 할인해준다.

KBO ‘더 베이스볼’ 6월호 발간

KBO는 4일 공식 매거진 ‘더 베이스볼’ 6월호(통권 7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 표지는 롯데의 새로운 마무리투수로 거듭난 심수창이 장식했다. 올 시즌 화제를 모으고 있는 한화와 대형 트레이드 등을 다룬 기사들이 실려 있다. KBO 공식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볼 수 있으며, 구매는 위편 홈페이지(http://me2.do/5Xlh3xVU)에서 가능하다.

NC 김태군 “올 시즌 전 경기 출장 목표”

지난 2일 경기중 알레르기로 교체
144경기 출전…컨디션 관리 숙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할 겁니다!”

NC 김태군(26·사진)이 포수로서 ‘전 경기 출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4일까지 53경기에 선발출장하고 있다. 개막전부터 전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포수는 KBO리그 전체에서 김태군이 유일하다.

포수는 수비 때마다 쪼그려 앉아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다. 투수나 호수를 맞추면서 동시에 야수 전체를 조율하느라 정신적 소모도 크다. 책임감 역시 막중하다. 웬

만한 정신력과 체력으로는 이루기 힘든 기록이 전 경기 출장이다. 그럼에도 김태군은 전 경기 출장에 강한 집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김태군의 모습을 호모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가 NC 김경문 감독이다. 김 감독은 “포수로서 50경기 넘게 선발출장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힘들 텐데 티도 안 내고 잘해 주고 있다”며 호모했다. 뒤에선 이런 김태군을 살뜰히 보살피고 있다. 실제로 김 감독은 2일 마산 LG전에서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자 김태군을 박광열로 교체했다. 밖에선 ‘주전 김태군도 경기 도중 교체하면서 강하게 키운다’고 평가했지만, 이유가 있었다. 김태군은 “경기 도중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

나서 오른쪽 눈이 부어올랐다”며 “감독님께서 경기 도중인데도 나를 급히 병원으로 보내셨다. 죄송하면서 감사했다”고 귀띔했다.

김 감독은 선천적으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김태군의 특이체질을 알고 있었다. 체질상 편도선이 부어도 약을 먹지 못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긴 김태군을 교체해준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런 핸디캡을 안고서도 전 경기 출장에 도전하는 제자가 대견하면서도 안타깝다. 김 감독은 “도전은 힘들겠지만 해낸 뒤에 성숙해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144경기를 100% 컨디션으로 나갈 순 없다. 고비를 이겨내고 자리를 지키면 보상이 기다릴 것”이라고 응원했다.

마산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